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269

JCCT 2022-11-32

동아시아 무술의 국제화 추진 전략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ast Asian Martial Arts

조문정*, 장윤창**

Zhao Wenzheng*, Jang Yunchang**

요약 오늘날 모든 국가는 체육강국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기하면서 스포츠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중 동아시아의 무술 중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무술은 그 역사가 길고, 의미가 깊으며 무술의 국제화 추진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무술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무술의 이론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미흡하며, 지역마다 문화적 배경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국제화 보급 인재가 부족하며, 혁신적 추진방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다. 각 무술의 국제화 보급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점을 기반으로 국제화 추진 전략의 분석을 진행 하는 동시에 무술 국제화 이론 체계 구축과 무술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국제화 인재 공급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과학적 혁신과 발맞춘 무술 국제화 추진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적 무대에서 중국 무술의 향후 계승과 발전, 그리고 중국무술의 가치에 대한 국제화 추진은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실천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무술, 국제화, 인재, 추진 전략

Abstract Today, spor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national development, with all countries raising the strategic goal of becoming a sports powerhouse. Among them, martial arts, which are active in China as the main stage among East Asian martial arts, have a long history and are meaningful,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martial arts is also important. In this study, major problems fac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martial arts internationalization in East Asia were analyzed in depth. Currently, the theoretical system of martial arts is inconsistent and insuffici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cultural background from region to region, there is a lack of talent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innovative promotion methods are not yet mature. Based on the major problems encountered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ach martial arts, we will analyze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establish a martial arts theory system, accept the diversity of martial arts culture, and supplement the internationalization talent supply mechanism to propose a martial arts internationalization promotion method. The futur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martial arts on the global stage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value of Chinese martial arts have important theoretical values and practical significance.

Key words : Martial Arts, Internationalization, Talented Person, Promotion Strategies

*정회원,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29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29,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02
**Corresponding Author: 82960818@naver.com
Dept. of Sports Science, Kyonggi Univ, Korea

I. 서론

무술은 중국 특유의 스포츠 종목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다. 이미 오래전 많은 무술 전승자에 이어 오늘날까지 무술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는 스포츠 종목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무술의 가치는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수련하며 의지를 단련하는데 있다. 무술의 발전은 무술 자체의 영향력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식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로 국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술은 중국과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와의 연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 추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무술은 중국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로서 중국 무술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중국 무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국 무술의 국제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무술의 국제화를 추진하려면 현재 무술의 국제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무술의 국제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II. 중국 무술 국제화 발전의 의의

중국 무술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중국 고대 商周 時代부터 그 기원이 시작된다. 일종의 민족문화인 무술은 철학 · 과학 · 예술적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민족의 문화와 미적 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무술은 동아시아 가운데에서 중국을 기반으로 전수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우수한 전통 문화로서 동작으로 언어를 삼는 문화 기호중에 하나이다. 특히 중국 무술은 향후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무술의 국제적 인식과 이해와 학습을 통해, 무술의 더 나은 전승과 발전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문화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국제 정세 하에서 일부 국가들이 문화 침입 전략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 은연중에 국민의 사상과 관념을 변화시켜, 본토 문화는 점차 소외되고, 특히 동아시아국가 중에서 중국 무술은 오늘날 많은 서양문화의 출현으로 국민들이 자국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이는 중국 무술의 국제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1]. 중국 무술은 신체나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무술도 중국 전통문화의 훌륭한 축으로, 중국 무술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력과 호소력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동아시아 무술의 국제화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

1. 이론체계 및 통일성 부족

중국 무술은 내용이 풍부하고 심오하며 운동형식이나 기술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이러한 특징은 현재 시대 무술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화과정에도 한계가 있다. 중국 무술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정확도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들의 무술 학습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무술의 내용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지 않아 무술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나 서양인의 시각에서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술을 배우면서 무술의 학습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인식의 차이이다. 무술을 배우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무술의 진정한 의미와 문화적 정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의미에서도 무술문화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대 스포츠와 과학기술이 결합하여 함께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운동 훈련, 체육 대회 및 교수법 등 모든 방면에 강력한 과학기술과 이론적 기반이 구축 되어 있다. 그러나 무술은 중국 문화의 대표적인 체육 종목 중의 하나로서 아직 체계적인 이론 연구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 무술은 원래 유·불·도 세 곳의 관념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천인합일”, “음양보완”, “외수내련”, “강유상제”, “이정제동” 등 과학적인 지도사상 및 체계가 결합되어 있다. 무술의 실천과 내용은 다양하지만 무술 이론은 발달한 현대 스포츠 이론 체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부풀리기만 해서는 무술의 현실을 미화할 수 없고, ‘무술 문화’를 십수 년 동안 외치며 그에 걸맞은 책, 논문 등이 많이 출간됐지만 중국 무술의 보급 과정에서 문화 부재는 여전히 심각해 변하지 않았다.

2. 문화배경차이로 인한 융합 발전의 어려움

동아시아의 국가 가운데 중국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유가사상으로 중용, 화목한 분위기와 같은, 일정한 폐쇄성과 제약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 아래서 무술의 발전은 일정한 농업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 고대 중국의 특징이다. 서양문화는 대부분 바다를 둘러싸 해양 문화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고 항해업이 발달한 데다 향해 자체가 모험적인 탐색이다. 그 특수한 지역환경에서 서방의 많은 국가 사람들은 모험을 사랑하고 경쟁을 주장하며 개인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문화의 영향 아래 서양인들은 안일하고 담담한 삶을 선호하지 않고 경쟁적이고 모험적인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의 부재로 서양인들은 단순히 보이는 외적인 표현만으로 중국 무술을 판정하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교집합을 찾아 가치와 정서의 공감대를 찾아야 서양에 중화무술을 알릴 수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서양의 문화적 특징, 생활습관 등에서 무술의 발전과 추진문제를 탐구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자기감각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무술문화를 바라보았는데, 이는 무술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무술이 해외에서 진행한 수업에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무술 용어의 해석과 이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왕페이쿤은 "무엇을 설명하면 기라고 하고, 무엇이 단전에 가라앉는가? 많은 국제 수강생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여러 가지 설명이나 용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화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각이고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무술 이론, 단전론, 오행론 등 문화 차이는 국수강생들의 무술 습득에 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무술의 경험적 체험이나 경험은 교습대상자에 대한 해석을 제한함으로써 국제무술습자들의 운동프로그램의 특징·기능·표현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방해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국제화 인재부족

국제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무술의 국제화 발전은 이미 필연적인 추세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무술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수동적이며 무술의

국제화 전파를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지 않다. 또 언어적인 문제, 기존의 보급 인력이 대부분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해 중국 무술의 전파와 발전을 가로막아 외국인들이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로 인력·물력·자본 등 각 방면의 자원 배분 문제는 중화 무술 국제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종합 국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무술의 국제화 발전 중 자본과 같은 구조적 결핍은 일정 범위 내의 효율적인 조달·통합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인력 자원, 특히 고급 인력 자원의 극심한 부족은 단시간에 해당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 인력 자원의 부족은 현재 무술의 국제화 발전에서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직면한 주요 문제이다.

국제화 인력은 무술이 국제화 발전 속에서 무술 실천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국제화 인재의 결합이다. 국제화 인재가 국제사회의 무술 실천을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가·사회조직·민간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국제화 인재의 구체적인 무술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화 인재가 무술 국제화의 필연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 인재의 질은 무술의 국제화 발전의 깊이에 영향을 주고, 국제화 인재의 수는 무술의 국제화 발전의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현재 무술의 국제화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어 무술의 국제화 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급 국제화 인재의 부족은 무술의 국제화 발전에 효과적인 인적 매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인재 부족은 해외무술 교육자가 전문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는 무술의 교육이나 교육자의 자질적인 면이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해외 이민과 유학에 앞서 국내 연수 두세 달 만에 외국으로 나가 모씨 후손을 내세우며 호들갑을 떨었다"는 등의 실천 피드백을 쏟아내는 등 무술 국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에 무술 국제화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향후 과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4. 전파방식의 혁신성 부족, 전파경로의 단일화

해외 무술 애호가들은 제대로 된 전파 플랫폼을 통해 무술 동영상상을 보기 어렵고, 무술 콘텐츠는 있어도

언어·전수 방식 등으로 배우거나 익히기 힘든 점이 있다. 또 해외 무술 애호가들은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른바 '누군가'가 '누군가'에 도전해 패배하는 동영상과 가짜 '스님'이 무술을 지나치게 부풀려 '신격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전파 방식은 양날의 검으로 멀티미디어의 제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면 무술의 본질이 국제화의 중요한 요소다.

IV. 동아시아 무술 국제화 추진 전략

1. 국제화 이론체계 수립

과학은 기초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무술의 국제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무술의 국제화 발전은 이론적으로 끊임없이 그 국제시장에 대해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비전과 방향성 필요하다. 현재 중화무술의 국제화 발전 이론은 허약하고 무이론적 지도에 가까운 국제화 실천도 맹목적이고 무모한 실천이 되고 있다. 체계적 관념 아래 무술의 국제화 기초 이론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려면 우선 관리학·전과학·심리학 등 다학제 이론의 도움을 받아 무술의 국제화 과정에서의 일반 법칙·원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무술의 국제화 발전 실체를 접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무술의 국제화 발전을 위한 연구 도구·방법·수단 등을 창조해야 한다. 둘째, 실천 수요에 따라 무술의 국제화 발전의 개념, 평가기준, 평가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국제화발전의 각 요소들을 더욱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이론적 성과로 중술의 국제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3].

기초 이론 응용을 가속화하고 중화 무술 국제화 발전을 위한 질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현재 중화 무술 국제화 발전은 고품질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아시아 무술의 영향력 향상과 무술 문화의 국제 주류 문화로의 융합 등 효율성 측면, 구체적으로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과를 이루는 문제까지 포함되며 체계적인 이론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무술의 국제화 발전은 적지 않은 이론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제화 발전의 실천을 지도할 응용적 연구는 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 관념 아래 기초이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관점에서

무술 국제화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국제 모델의 거대한 문제를 소규모·단계적·구체적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소림사에서 최근 시작한 '소림무술단품제'의 실시를 통해 소림무술의 세계적 발전상을 평가할 수 있고, 국가한관/공자학원총부(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와 중국어 국제보급무술사 자격양성소의 '국제무술단위제' 및 계열보급 교재 활용을 통해 중국 무술의 세계적 발전상을 평가할 수 있다 [4].

둘째, 국제화 대상에 대한 인식·태도·등 전략적인 시각에서 심리적인 측면을 폭넓게 조사하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무술 국제화의 동태적 변화 수준을 측정하고, 근본적으로 무술의 국제간 발전을 위해 정확한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술의 국제화 연구에 대한 지원과 자금 등의 투입을 늘리고, 무술의 국제화 연구에 대한 정보, 자원 등의 공유를 통하여 연구자들의 국제화 연구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진행하여 연구의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연구자들의 무술 국제화 연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이론 적용에 박차를 가해야 2025년 무술의 국제적 파급력이 크게 높아질지, 2050년 중화무술문화가 국제 주류문화에 편입될지를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드백으로 무술의 국제화 발전에 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2. 무술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차이를 수용

구동존이(求同存異)는 대동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물 자체가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표준체일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무술 일대일로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무술의 운동효과와 무술의 본질을 바로잡고, 무술문화와 무술기술, 무술사상, 중국문화를 적절히 전파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첫째, 다원화된 무술인재를 양성한다. 오늘날 무술인재는 무술의 정수를 잘 습득하는 동시에 반드시 더 많은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교수 과정에서 국제 우호인들이 더 잘 이해하고 계속 전파할 수 있다. 둘째, 다원화된 문화공영을 추구하고,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의 문화전통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무술 문화를 각국에 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무술이 그

가운데 상생의 역할을 하고, 무술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시기의 '판단급'과 '태극권'을 통하여 사람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더욱 유지하며, 무술이 기타 많은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전파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제화인 재 공급체계 구축

동아시아 무술의 국제화과정을 위해 최고급 인재양성은 인재육성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인재육성체계와 해외 인재규제체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인재양성의 원천이다. 국내 국제화 인재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무술 국제화 '三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무술 국제화 발전의 지속가능성은 국제화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수준 높은 인재의 고갈과 단절은 무술 국제화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제화 고급인재를 확보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기존 교육자원을 동원해 무술의 국제화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고급 인재의 '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능력·고품질·고경지를 나타낸다. 고능력은 무술의 국제화 작업을 감당할 수 있고, 소질은 무술의 국제화 과정에서의 강력한 순발력과 창의력을 갖추는 것이며, 경지는 무술의 국제화 과정에서의 무술의 국제화 발전에 대한 의욕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무술의 국제화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다. 국제화 三高 인재양성을 고등학교 무술과 민족전통체육전공 양성에 우선 포함시킬 수 있고, 무술 국제화 방향을 늘려 무술 국제화 고급인력 양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국제화 인력의 무술이론·기술·문화·덕목 등에 대한 양성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무술 중영사전이나 무술 중영 이중언어 교재를 창간해 국제화 인력들이 영어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습득과 무술 국제화 인력의 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국제화 인력양성에 국제정세, 대외교류 등 전문과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국제화 인력의 국내외 정세 및 관련 지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술의 국제화 발전에 대한 흥미와 지향점을 길러 무술 국제화 인력의 자질과 경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무술 전문 인력의 취업 및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화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내부 조혈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5].

무술의 국제화 인력 양성 기능을 상실 직전까지 갔

던 '造血'을 통해 무술의 국제화 외부 수혈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외 국제화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술의 장기적 '빈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외부 수혈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조직은 규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비록 해외 무술 교수자의 관리는 국가별 차원이 다른 정부부처를 통해 수행될 수 없지만, 국제 조직 및 국내 무술 관련 부서는 관련 직업자격접근제도와 규제제도를 통일하고 현지 무술협회를 이용하여 해외 무술 교수자에 대한 교육과 규제를 실시하여 동아시아 무술의 국제시장을 점차 규율하고 해외 무술 교수자의 관제를 국제화 발전의 상시화함으로써 무술의 국제화 고급인력 부족을 보완하여 무술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혁신적인 전파방식, 국제화추진 경로 확장

무술이라는 배경에서 무술이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중국의 전통문화의 문화성취의 중요한 창구가 되었지만, 어떻게 국제화를 할 것인가는 새로운 전파 메커니즘과 교류기술을 창조해야 한다. 더 깊이 있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전파방식에 대해 부단히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공자학원, 등 관공서 위주의 단일한 전파와 교류방식의 울타리를 허물고 국제무술의 체계적인 연습과 보급자 위주로 전환하여 '정부주도+국제협력공천'과 같은 다원적 협동전파 체제를 실현하고, 국외의 연습자 중 무술의 내면을 잘 아는 전파자를 주요 보급자로 삼았다. 둘째, 전파 과정에서 '수용자', 즉 '누구에게 전파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국제화 전파는 무술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외국에서 인정받아야 국제 전파가 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술의 국제화 전파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국제무술연합회, 중국 무술협회, 국제무술협회 등이 대규모 대회나 전시회를 열어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대회 및 전시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우리 무술의 전승자, 무의에 능통한 수련자들이 '기격(技擊)'의 특색을 가지고 대회나 전시회에 의존하여 참가자들의 무술인 '기격(技擊)·공격성'이 아닌 '기격(技擊)·공격성'을 필요로 한다 [6].

예술의 형식을 통해 무술을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무술의 예술화 추구를 보여준다. 액션스타가 촬영한 중국 무술의 요소를 띤 영화는 중국 무술이 세계인의 시야에 들어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술의

예술화 발전도 무술 발전의 한 형태로서 현재 석소룡·오경·오월·장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영상물들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무술의 국제화는 무술의 예술화 발전이 필수적이다.

V. 결 론

현재, 수준의 요구는 이미 무술 국제화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새로운 발전 주제가 되었다. 무술 국제화의 수준 높은 발전은 발전 구조의 균형과 인적자원의 지속 가능한 기초 위에서 실현되는 그 효율의 안정적인 향상을 나타낸다. 현재 단계에서 보면 국제화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무술의 도전도 쉽지 않으며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무술의 국제화 미래 발전을 위한 시대적 구상을 수립하고 제공함으로써, 무술의 “출발”전략의 조기 실현과 국제화 발전 3단계 목표의 실현에 새로운 발상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아시아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체육강국 건설의 요구와도 부합한다. 물론 무술의 본격적인 국제화 추진은 오랜 노력, 여러 환경적인 요인의 지지, 추진이 필요하지만, 무술의 국제화 발전에서 효율과 구조, 인적자원 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술의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길이며, 미래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화 과정에서 성격·문화·규범 등의 이유로 발전을 제한했지만,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중국 특색 문화의 매력, 과학의 보급 방법, 무술의 정수, 인재 양성 등이 무술의 국제화를 촉진시켰다. 중국 무술의 발전은 다른 종목의 발전 형식을 벤치마킹해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내세워 특유의 방식으로 무술의 가장 우수한 면모를 세계에 보여야 한다. 무술은 문화의 우수한 대표로서 인간 무술의 국제화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진파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뉴미디어 기술에 의한 민간 교류와 국가교류 강화는 서방여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패권’의 이미지 반전에 도움이 된다. “국제우호도시”와 같은 형식을 만들 때 외교적인 측면, 무술문화단체의 문화교류, 국제문화연구가의 영입을 의미한다. 오늘날 현재 문화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국내 무술의 발전은 물론 해외 전파도 빼놓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런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잡아야 동아시아의 무술이 빛을 발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다.

References

- [1] Kong Xiangchen, Liu Na. Internationalization of Wushu [J]. Stylistic Goods and Technology, 2021(01):8-10
- [2] Huang Chenxin. Reflections on Wushu's Reformation in Olympic Games under the Background of Internationalization[J]. Innovation in Ice and Snow Sports, 2021(04) : 189-190.
- [3] Li Tianhe. Cultural predicament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Wushu international communication [J]. Contemporary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0, 10(04) : 205-207.
- [4] Yang Huilan, Wang Shuai.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Wushu in Confucius Institute[J]. Wushu Research, 2021, 6(11) : 66-68.
- [5] Zhang J and Wang J. SWOT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competitive martial arts[J]. Wushu Research, 2021, 6(08) : 62-64.
- [6] Cui Wenjuan. Internationalization of Wushu under the Comparis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J]. Contemporary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9, 9(17) : 212-213.